

단단해진 호남... 흔들리는 PK

대선 **D-8**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 전국 민심 르포

전국 표심 불법 비상계엄 심판
이재명 강제 지역은 단단해지고
김문수 텃밭은 균열 조짐 일어
보수층 결집·막판 단일화 변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전국 유권자 표심은 12·3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쪽으로 형성되고 있다. <관련기사 2·3·4·5·6면> '12·3 내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러지는 조기대선인데다 비상계엄에 대한 '반감'과 '상처'가 여전히 민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내란 심판'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민심은 더 견고해지고 있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에서는 균열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다. 광주일보 등 전국 주요 지방신문 9개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24·25일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기획-21대 대선 민심 르포' 취재 결과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선까지 8일이 남았다고 보수층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어 일단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추격하는 구도는 더 선명해지고 있다. 또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카드라는 변수가 있다는 변동론에 맞서 막판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공행진 중인 이 후보의 지지를 넘어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최대 유권자가 모인 수도권은 이 후보가 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김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도층은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후보들의 공약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정당이 없는 수도권 중도층 대다수는 이번 대선 역시 '협소 대선'으로, 차선책을 택해야 하는 선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스팅 보터 충청 민심'은 아직 변동성이 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실익을 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민생회복에 방점을 둔 후보에게 충청 표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의 유권자 상당수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충돌하는 울산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었다. 반면, 전통적 보수 강세지역인 경남 민심이 흔들리고 있어 정권교체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강원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상승기류였지만, 대선이 다가

올수록 보수결집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 전북 민심은 국민의힘에 분노하고 민주당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제주에서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정책과 공약을 두고 보겠다는 유권자가 많아 살얼음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전남 민심은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대선기간 내내 12·3 내란' 심판론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극우 보수단체 등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반대해 오며 그동안 국민 갈등을 일으켜 온 국민의 힘에 대한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분위기다.

과거 전두환 정권의 계엄으로 80년 5·18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던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윤석열의 '12·3 비상 계엄'이 또 한번 '계엄 트라우마'를 소환해서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는 질문에 25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토박이인 김형용(45)씨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봉선동도 지난 대선과의 분위기는 다르다"면서 "표심은 일반적으로 기운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당시 광주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에게 20%대의 표를 줬던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남구 봉선동 주민들의 분위기도 예전과 같지 않다.

목포에서 만난 최영준(68)씨는 "지난 대선 결과도 그랬지만, 호남이라고 맹목적으로 민주당만 지지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올해만큼은 다르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5·18이라는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지역이어서 이번 선거 만큼은 '내란'에 대한 강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득표율을 90% 이상 목표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김대중(94.61%), 노무현(93.38%)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이를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선거전까지 투표율과 득표율 높이기엔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 선대위를 꾸리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동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30'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이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에서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 및 선거 전략이 지역민들 설득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다만,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의 발길이 투표소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선 투표용지 인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양영희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광주 동구 서남동의 한 인쇄소에서 전남도 내에 배부될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선관위는 인쇄 이후 후보가 사퇴할 경우,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선 선상투표 시작...광주 106명·전남 303명 대상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26일부터 29일 까지 실시된다. 25일 광주시·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선상투표 유권자 총 3051명 중 광주·전남 선상투표 유권자는 총 463명(광주 160명, 전남 303명)에 이른다.

선박별 선상투표 실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기간

중 선상이 결정된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한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전자)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자신의 주민등록

특기 관할 시·도선관위로 보내진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실드팩스(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합·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팩시밀리)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기 우편을 보내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인세 광주 8천억·전남 6천억 '5년 새 최저'

광주·전남지역의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 세수도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광주지방국세청이 걷은 법인세는 광주 8123억 1100만원, 전남 6183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31.6%, 7.4%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광주·전남지역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의 법인세 수입은 2019년 1조170억 54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9075억3000만원에 이어 다음해인 2021년 9635억5800만원 등 1조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2022년부터는 1조원대 이상을 회복했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소비 위축과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황이 겹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모습이다.

전남 역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국내 석유화학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법인세 실적도 폭락하고 있다. 전남의 법인세 세수는 2019년 7876억49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 때인 2020년 5495억5700만원으로 떨어졌다. 2021년 7875억6300만원,

2022년 1조 3022억8900만원으로 잠시 회복하는 듯했으나, 2023년 6677억8000만원으로 급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 등이 심화되면서, 기업 경영도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